

캠코, 대한유화 보유주식 21% 매각
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는 대한유화공업 보유 지분 21%(174만2404주)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11월1일 밝혔다.

캠코는 2005년 말 정부로부터 대한유화공업 주식을 증자 대금으로 현물 출자받아 2대 주주가 됐다.

매각 대상 지분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(주당 3만원) 기준으로 약 523억원이다.

캠코 관계자는 “11월6일까지 매각 주간사를 공모해 선정하면 자산 실사와 평가 등을 거쳐 매수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가급적 2006년 안에 매각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02>